

당국만 바라보는 한국회계... IFRS 8년, 달라진게 없다

삼바사태 교훈, 회계전문가 역할은

구조적 변화·기업 회계역량 키워야
조직구조, 정확한 판단하기에 부족
기관 의존 말고 자율성 키워나가야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 지 8년이 지났지만 금융당국을 비롯한 사회구조는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회계업계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구조적 변화와 더불어 기업이 회계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10일 한국회계정보학회 주최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IFRS시대 회계전문가 역할과 책임' 심포지엄에서 김종현 한양대 교수는 "한국은 금융위원회 증선위원장 한 분이 의사결정의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면서 감독당국 조직 구조가 정확한 회계 판단을 내리기에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IFRS를 적극 도입한 영국의 경우 회계 판단의 최종 결



(왼쪽부터)송창영 변호사, 최종학 서울대학교 교수, 최연식 경희대학교 교수, 김종현 한양대학교 교수, 이상열 한양대학교 교수, 지현미 계명대학교 교수. /손엄지 기자

정자는 FRC라는 별도의 감독당국 전체다. 여기에는 위원회와 회계전문가가 모두 포함돼 있다. 독일의 회계 감독은 민간 중심의 재무보고 집행패널(FREP)과 공적 권한을 갖춘 감독기관인 바핀(BaFin) 등 이중 구조로 이뤄진다.

김 교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후 금융위는 회계 감독팀을 따로 만들었지

만 상당 부분의 심리가 회계 전문가 한 명이 참석하는 증선위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 회계 조사를 담당하는 심사국, 기획감리실에는 회계 전문가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감독당국의 역할은 옳고그름을 판단하는 제재가 아니라, 올바른 회계적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촉진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현미 계명대 교수는 "지금까지 감독당국은 디테일한 회계기준 처리에 대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가 그 하나의 예"라고 표현했다.

지 교수는 "기업과 전문가들은 감독당국만 바라보고 있다"며 "이들의 판단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장을 마련하고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게 감독당국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IFRS는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한 만큼 기업 내부의 회계적 역량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여전히 한국 기업들은 회계에 큰 관심이 없다고 지적하며, 각종 유인책을 통해 기업 내부 인재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종학 서울대 교수는 "한국 기업들은 형식적으로 IFRS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회계기준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자율적 판단과 판단의 이유를 공시하는 것에 습관이 안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들은 판단에 앞서 회계법인이나 회계기준원 등 기관의 결정

에 의존한다"면서 "기업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 외감법이 시행되면 회계법인이 독립적으로 감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회계적 자문을 해주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광윤 아주대 교수 역시 기업의 회계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회계적 역량을 갖췄는지를 평가하고, 회계학을 전공한 석사 이상의 경력자를 회사에 의무적으로 투입하는 것 등을 유인책으로 제안했다.

한편 회계업계도 변해야 한다는 일침도 나왔다.

최연식 경희대 교수는 "옛날 회계를 경험하지 않은 시니어 회계사들도 여전히 질의회신에 대한 갈망이 크다"면서 "IFRS에 대한 사고체계가 현장에 전파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교수는 "회계 전문가들은 질의회신 뒤에 숨으려는 소극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정답과 오답에 대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갑을병설과 다수설, 소수설의 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지방은행은 지역경기 '거울'... 불황 직격탄에 부실 ↑

지역 침체 지속... 회복 더딜수도

자기자본 확충 등 건전성 관리 필요

지역 경기 부진 여파로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의 부실채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시중은행이 일제히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란 평가다. 업계 안팎에서는 조선, 중공업 등 일부 업종으로 인한 지역 경기 악화가 부실채권비율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전문가들은 지역경제 악화가 금융기관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의 부실채권비율(고정하여신비율)은 0.49%로 지난 2017년(0.67%)에 비해 0.18%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별 부실채권 규모 및 비율>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기업	산업
부실채권규모	1,307,548	1,070,125	1,182,477	1,217,323	341,987	112,695	333,488	591,357	99,322	2,726,824	5,137,186
부실채권비율	0.48	0.45	0.51	0.52	1.11	0.63	0.90	1.43	0.71	1.32	4.22

반면 지방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2017년 0.94%에서 지난해 0.96%로 0.0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로는 1조3980억원(2017년 기준)에서 1조4788억원으로 808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가장 많이 증가한 지방은행은 경남은행으로 부실채권이 지난 2017년 2651억원에서 768억원 증가(3419억원)했고 대구은행도 390억원 증가한 3334억원을 기록해 뒤를 이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업, 철강업, 섬유업 관련 중소기업 대출이 70% 정도로 지역 중소기업에 자금공급

을 하고 있다"며 "현재는 부실위험과 연체율 상승 등 리스크가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은행인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부실채권비율도 지난 2017년(2.43%)보다 2.77%로 높아졌다. 부실채권 규모는 7조8640억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선업이 부활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정상궤도에 오려면 갈 길이 멀다"면서 "회복하기엔 상당한 시간이 걸려 이들 기업을 상대로 대출을 내준 은행의 여신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역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자산건전성 회복이 더딜 수 있다는 것. 실제로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전국 경기 동향 발표에서 지난 4분기 대비 보험세를 보여 나빠진 경기가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지역의 경우 조선과 해운업, 자동차 부품업 침체가 부동산 업종의 채무상환 능력까지 낮춰 경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지역 경기 부진으로 지방은행과 국책은행의 대출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리스크 관리

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기업이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때 금융기관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하겠지만 기업이 결국 문을 닫게 되면 이 부담이 고스란히 금융기관과 또 다른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양재열 전북대 경영대 교수는 "지역경제가 나빠질수록 지방은행 등 지역기업에 대출을 제공하는 은행의 부실채권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자기자본비율을 확충하고 대출 증가율을 낮춰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수요 감소·가격 하락세 등 우려의 시선도

>> 1면 "반도체 어닝쇼크의..."서 계속

글로벌 IB들의 평가도 달라졌다. JP모건과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의 목표가격을 각각 5만원, 5만2000원을 제시했다. CLSA·맥쿼리·HSBS·CS 등은 5만4000~5만5000원을 제시했다. 노무라는 5만9000원을 매겼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지분율 57.11%, 9일 기준), SK하이닉스(51.06%)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시장 파이 줄어, 좀더 지켜봐야

아직은 우려의 시선이 팽배하다. 공급과잉도 문제지만, 수요 자체가 줄었

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는 "올해 반도체 시장 규모는 작년보다 3% 줄어든 4545억4700만달러(약 511조3600억원)를 기록하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14.2% 감소한 1355억5700만달러로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WSTS는 작년 11월만 하더라도 세계 반도체 시장은 2.6% 성장할 것으로 봤다. 이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성장 엔진인 반도체 시장에 대한 경고음의 근원이다.

D램익스체인지는 "재고가 줄지않으면서 반도체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며 "가격 하락세가 올해 2분기까지

라던 기존 전망을 3분기까지도 D램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는 쪽으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JP모건은 "1996년 이래 D램의 가격 사이클을 분석한 결과 2017~2018년 상승했던 반도체 평균거래가격(ASP)은 2019~2020년까지 하강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의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견제 움직임도 거세다. 미·중 무역 전쟁의 합의 과정에서 중국이 미국 반도체를 6년간 2000억달러 이상 사들이겠다고 밝힌 상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수입을 늘리기로 합의할 경우 국내 반도체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김문호 정치경제부장 kmh@

<지방은행 고정하여신비율> (단위: %)

	2015	2016	2017	2018
경남은행	1.41	0.90	0.89	1.11
광주은행	0.88	0.66	0.60	0.63
대구은행	1.23	1.19	0.82	0.90
부산은행	1.16	0.90	1.53	1.43
전북은행	1.43	1.32	0.87	0.71

/자료=금융감독원

제58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9년 5월 15일~6월 5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4주차는 6월 4일(화) 6월 5일(수)

● (주말반) 2019년 5월 18일~6월 8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음선) : 300,000 → 130,000원
5월26일(일), 6월 2일(일), 6월 4일(화)

강사: 김대영

※사전 수강 신청 필수!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